

DMZ DOCS SPECIAL SCREENINGS

논픽션의 기술들
**THE ART OF
NON FICTION**

DMZ DOCS 특별전
DMZ DOCS SPECIAL
SCREENINGS

국립현대미술관 필름 앤 비디오

2014년 국립현대미술관의 MMCA Film and Video가 문을 열었습니다. MMCA Film and Video는 현대미술과 영화의 만남을 경험할 수 있는 현장이며 대중적인 예술로써 영화가 갖는 오락적인 재미까지 만끽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실감나는 이야기매체로써의 영화는 여전히 관객을 유혹합니다. 반면 익숙한 이야기의 틀을 버리고 새로운 창문을 여는 영화들도 있습니다. 영화의 고유한 특성과 잠재적 가능성을 탐구하는 영화는 앞으로 MMCA Film and Video가 발견해 나갈 미지의 대상들입니다.

MMCA Film and Video는 영화를 향한 관객의 다양한 기대치에 따라 다음 세 가지 다른 기준의 테마섹션을 구성했습니다.

1. 생각하는 영화

영화감독 로베르 브레송은 “하나의 이미지는 다른 이미지의 영향 아래서 마치 어떤 색이 다른 색깔의 영향을 받아 변하듯이 변형되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프레임 안 시공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연구하면서 순수한 시네마토그래피의 세계를 지향하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실제 삶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의 원인을 추적하면서 해결할 수 없는 부조리와 모순들을 영화적 형식으로 변형시키는 영화들도 있습니다. 이런 영화들은 영화가 곧 사고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경험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생각하는 영화>는 영화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거나 영화를 통해 어떤 본질을 탐구하게 하는 영화들을 소개하는 섹션입니다.

2. 꿈꾸는 영화

신화와 동화, 공상과학 이야기가 유사한 패턴을 갖고 있는 것은 인간의 변하지 않는 욕망과 관계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관객을 현실 너머의 세계로 끌고 가는 오래된 서사의 원형은 영화를 가장 대중적인 예술로 각인시키게 합니다. <꿈꾸는 영화> 섹션은 관객을 환상에 빠트리게 하고 시간을 잊게 만드는 마법을 발휘하는 영화들을 소개합니다.

3. 열린 영화

<열린 영화>는 영화상영의 고정된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감상법을 제시하는 섹션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시간도 없이 통과한 영화적 시간이 물리적 오브제가 되어 전시되거나, 설치된 상태에서 전체를 집중해 보지 못했던 미디어아트 작품이 극장에서 상영될 수도 있습니다. <열린 영화>는 무빙이미지의 미래를 가능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MMCA FILM AND VIDEO

The 2014 MMCA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Film and Video has opened to the public.

MMCA Film and Video provides a place not only to experience modern art and films that have already interpenetrated and blurred the boundaries of each genre, but also to enjoy their entertaining fun as the most popular arts. Films attract audiences as they create a dramatic reality and produce the magic of empathy to take the audience deep into a story. There is, on the other hand, a new type of film. Films of this type abandon a familiar plot and open up a new window. These films do not offer dramatic pleasure but search for the very nature of film itself, and this is the beauty that is not yet explored and that we can discover.

MMCA Film and Video built three theme sections based on three different criteria, reflecting a variety of expectations that an audience has for movies.

1. THINKING CINEMA

Robert Bresson said, “An image must be transformed by contact with other images as is a color by contact with other colors.” Likewise, there are films that study a phenomenon occurring in its movie frame, aiming at the world of pure cinematography. There is another type of film, which pursues the cause of a matter in life and transforms unsolvable irrationality and contradiction into a movie. This type of film shifts the focus of a memory, allowing us to have time to contemplate as we are moving through it. “Thinking Cinema” section asks us to consider what a movie is or to search for the essence of a movie.

2. CINE-MAGIC

The reason that myths, fairy tales and a sci-fi stories share a similar pattern may be related to the eternal desire of human beings. The old power that all epics have hypnotizes the audience with its regular pattern and brings them beyond reality. That power is what makes us remember a movie as the most popular art. “Cine-Magic” section introduces magical movies that trick audience and make them to forget the passage of time.

3. OPEN CINEMA

“Open Cinema” section suggests a new way of watching and appreciating a movie, breaking from the old and fixed way. The passage of time that we undergo while watching a movie becomes a physical object to exhibit. Installed media artwork that has not drawn attention to its whole may be showing at a theater. “Open Cinema” provides an opportunity to guess the future of the moving image.

MMCA FILM AND VIDEO

‘생각하는 영화’ 첫 번째 기획

논픽션의 기술들 DMZ DOCS 특별전

‘생각하는 영화’ 섹션의 첫 번째 화두는 <논픽션의 기술들>이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 실제로 일어났었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다큐멘터리 영화는 어떻게 보여주는 지, 그 방식의 문제를 생각해보자는 취지다. 그런 면에서 작년에 열렸던 제 5회 DMZ국제다큐영화제에서 상영되었던 작품들 중에는 <논픽션의 기술들>을 논하기에 적합한 영화들이 많았다. MMCA Film and Video는 DMZ국제다큐영화제의 후원을 받아 <논픽션의 기술들_DMZ Docs 특별전>을 기획하게 되었다.

상영작들은 리얼리즘에 접근하는 다양한 방식의 영화들을 통해서 사실과 현실의 차이에 대해 생각해보게 한다. 사실은 현실의 저 너머에 숨어 있을 수 있고 그 사실을 들춰내는 일은 곧 불편한 작업이 되어버린다. 용기를 가진 몇몇 감독들은 은폐된 사실을 추적하는 영화를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은폐된 누군가의 진실처럼 가공되기도 한다. 진실은 주관적이고 정서적이기 때문에 간혹 날카로운 메시지를 던지는 다큐멘터리가 픽션보다 더 허구적일 수 있게 된다. 포착된 현실이 관찰자의 관점에 따라 허구적인 본성을 드러내는 순간을 목격할 수도 있고, 실제의 공간이 관찰자에 의해 해석되어 나타나는 것도 볼 수 있다. 다큐멘터리의 화법, 즉 논픽션의 기술은 실재와 가상의 사이에서 위험하지만 매우 유혹적인 줄타기를 타는 것과 같다. <리컨버전 Reconversion>이 건축 구조물에 응축된 시간의 호흡을 따라간다면, <리바이어던 Leviathan>은 날것 같은 현실 이미지의 불균형한 리듬에 집착한다. <유폐 Captivity>가 음영의 명암이 새겨진 침묵의 지속을 조각한다면 <자, 이제 댄스 타임>은 상처로 남은 기억의 정서적 양상을 허구적으로 재현한다. <거미의 땅>이 실존인물에 대한 겸허한 응시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프리즈마>는 무심한 순간이 지속되는 공간이미지를 내적 호흡으로 변형시킨다.

<논픽션의 기술들_DMZ Docs 특별전>은 장 킵 고다르, 켄 로치와 같은 거장의 다큐멘터리부터 이제 탐구를 시작하는 젊은 감독들의 작품들까지 아우른다. 현재 다큐멘터리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이 작품들은 카메라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 지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MMCA Film and Video는 다큐멘터리의 원형과 변형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한국다큐멘터리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고자 한다. 실재를 재현하는 영화와 실재의 내부를 탐구하는 영화들까지 풍성한 <논픽션의 기술들>을 접해보자.

THE ART OF NON FICTION

MMCA Film and Video, the first planning of “Thinking Cinema”
<The Art of Non Fiction_ DMZ Docs Special Screenings>

The primary topic of “Thinking Cinema” is <The Art of Non Fiction>. The purpose of this section is to get people to think about the way a documentary film shows things existing in the real world, and matters that happened in the past and are happening now. In that respect, the 5th DMZ Korean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last year had a number of movies that are fit to be discussed in <The Art of Non Fiction>. While being sponsored by the DMZ Korean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MMCA Film and Video finally opened <The Art of Non Fiction_DMZ Docs Special Screenings>.

The films to be shown in this special screenings approach realism in diverse ways, making us think about the gap between fact and reality. A fact may be hidden beyond reality and it may be uncomfortable to disclose the fact. A few brave directors sometimes chase a covered-up fact in a movie, but the fact is often processed as a truth that someone has hidden. A truth is subjective and emotional, which sometimes makes a blunt documentary even more fictional than a fiction is. The captured reality may reveal its fictional nature depending on the observer's point of view, and the reality may be disclosed by the observer's interpretation. The skills of non-fiction, i.e. the way of speaking, that a documentary possesses seem like walking on a tight, thin rope between reality and fiction in a dangerous but pleasurable way. “*Reconversion* (2012)” follows the passage of time condensed in building structures, and “*Leviathan* (2012)” obsesses over the imbalanced rhythm that the raw, bold image in a reality imparts. “*Captivity* (2012)” carves an image of lasting silence that carries engraved light and shade, and “*Let's Dance* (2013)” reenacts the emotional wounds of a memory in a fictional way. “*Tour of Duty* (2012)” does not give up the modest view of a real person, while “*PRISMA* (2013)” transforms the image of a space where careless moments continue into an inner contemplation.

<The Art of Non Fiction_DMZ Docs Special Screenings> encompasses not only documentaries of masters including Jean-Luc Godard and Ken Loach, but also young directors who now embark on their search. Let's meet <The Art of Non Fiction> that offers a rich range of movies from ones that realize the reality to ones that search for the inside of reality.

상영시간표

SCREENING SCHEDULE

SCREENING SCHEDULE

러닝타임 | 등급 | 자막
Duration | Rating | Subtitle

1주차

4.16(수) — 4.20(일)

4.16
수 Wed

1:00
Far From Vietnam
파 프롬 베트남
116min | 12세 | 국문(K),영문(E)

3:30
Far From Afghanistan
파 프롬 아프가니스탄
129min | 12세 | 국문(K),영문(E)

6:00
The Spirit of '45
1945년의 시대정신
93min | 15세 | 국문(K),영문(E)

4.17
목 Thu

1:30
Captivity
유패
64min | 12세 | 국문(K),영문(E)

3:30
The Ghost in Our Machine
우리 체제의 유령들
92min | 12세 | 국문(K),영문(E)

4.18
금 Fri

1:00
Elena
엘레나
80min | 15세 | 국문(K),영문(E)

3:30
자, 이제 댄스타임
Let's Dance
82min | 12세 | 영문(E)

4.19
토 Sat

1:00
프리즈마
PRISMA
61min | 15세 | 영문(E)

3:30
망원동 인공위성
The Basement Satellite
110min | 전체 | 영문(E)

관객과의 대화
Guest Visit
망원동 인공위성 The Basement Satellite

4.20
일 Sun

1:00
논픽션 다이어리
Non Fiction Diary
93min | 15세 | 자막 없음

3:30
산다
Sanda
93min | 전체 | 영문(E)

2주차

4.23(수) — 4.26(일)

4.23
수 Wed

1:00
산다
Sanda
93min | 전체 | 영문(E)

3:30
The Stuart Hall Project
스튜어트 홀 프로젝트
98min | 12세 | 국문(K),영문(E)

6:00
거미의 땅
Tour of Duty
150min | 12세 | 영문(E)

4.24
목 Thu

1:30
자, 이제 댄스타임
Let's Dance
82min | 12세 | 영문(E)

3:30
Captivity
유패
64min | 12세 | 국문(K),영문(E)

4.25
금 Fri

1:00
프리즈마
PRISMA
61min | 15세 | 영문(E)

3:30
The Spirit of '45
1945년의 시대정신
93min | 15세 | 국문(K),영문(E)

4.26
토 Sat

1:00
The Ghost in Our Machine
우리 체제의 유령들
92min | 12세 | 국문(K),영문(E)

3:30
Elena
엘레나
80min | 15세 | 국문(K),영문(E)

6:00
Reconversion
리컨버전
65min | 15세 | 국문(K),영문(E)

4.27
일 Sun

1:00
Far From Afghanistan
파 프롬 아프가니스탄
129min | 12세 | 국문(K),영문(E)

3:30
Far From Vietnam
파 프롬 베트남
116min | 12세 | 국문(K),영문(E)

2014.04.16 – 06.08

3주차	4.30(수) – 5.4(일)		
4.30 수 Wed	1:00 산다 Sanda 93min 전체 영문(E)	3:30 자, 이제 댄스타임 Let's Dance 82min 12세 영문(E)	관객과의 대화 Guest Visit 자, 이제 댄스타임 Let's Dance
5.1 목 Thu	1:30 프리즈마 PRISMA 61min 15세 영문(E)	3:30 The Ghost in Our Machine 우리 체제의 유령들 92min 12세 국문(K),영문(E)	
5.2 금 Fri	1:00 Far From Afghanistan 파 프롬 아프가니스탄 129min 12세 국문(K),영문(E)	3:30 The Stuart Hall Project 스튜어트 홀 프로젝트 98min 12세 국문(K),영문(E)	
5.3 토 Sat	1:00 Leviathan 리바이어던 87min 12세 대사없음	3:30 Captivity 유패 64min 12세 국문(K),영문(E)	6:00 Elena 엘레나 80min 15세 국문(K),영문(E)
5.4 일 Sun	1:00 자, 이제 댄스타임 Let's Dance 82min 12세 영문(E)	3:30 The Ghost in Our Machine 우리 체제의 유령들 92min 12세 국문(K),영문(E)	
4주차	5.7(수) – 5.11(일)		
5.7 수 Wed	1:00 The Art of Disappearing 그 남자는 어떻게 사라졌나 51min 12세 국문(K),영문(E)	3:00 거미의 땅 Tour of Duty 150min 12세 영문(E)	관객과의 대화 Guest Visit 거미의 땅 Tour of Duty
5.8 목 Thu	1:30 Reconversion 리컨버전 65min 15세 국문(K),영문(E)	3:30 Captivity 유패 64min 12세 국문(K),영문(E)	
5.9 금 Fri	1:00 산다 Sanda 93min 전체 영문(E)	3:30 The Stuart Hall Project 스튜어트 홀 프로젝트 98min 12세 국문(K),영문(E)	
5.10 토 Sat	1:00 Far From Afghanistan 파 프롬 아프가니스탄 129min 12세 국문(K),영문(E)	3:30 The Art of Disappearing 그 남자는 어떻게 사라졌나 51min 12세 국문(K),영문(E)	6:00 거미의 땅 Tour of Duty 150min 12세 영문(E)
5.11 일 Sun	1:00 Leviathan 리바이어던 87min 12세 대사없음	3:30 망원동 인공위성 The Basement Satellite 110min 전체 영문(E)	

5주차	5.14(수) — 5.18(일)			
5.14 수Wed	1:00 쉬린 네샷트 특별상영 Shirin Neshat Special Screening 95min 12세 국문(K),영문(E)	3:30 프리즈마 PRISMA 61min 15세 영문(E)	관객과의 대화 Guest Visit 프리즈마 PRISMA	
5.15 목Thu	1:30 인피니트 챌린지 특별상영: 차오페이 Infinite Challenge Special Screening: Cao Fei 66min 30' 15세 국문(K),영문(E)	3:00 거미의 땅 Tour of Duty 150min 12세 영문(E)		
5.16 금Fri	1:00 The Ghost in Our Machine 우리 체제의 유령들 92min 12세 국문(K),영문(E)	3:30 프리즈마 PRISMA 61min 15세 영문(E)		
5.17 토Sat	1:00 Reconversion 리컨버전 65min 15세 국문(K),영문(E)	3:30 논픽션 다이어리 Non Fiction Diary 93min 15세 영문(E)	관객과의 대화 Guest Visit 논픽션 다이어리 Non Fiction Diary	
5.18 일Sun	1:00 쉬린 네샷트 특별상영 Shirin Neshat Special Screening 95min 12세 국문(K),영문(E)	3:30 인피니트 챌린지 특별상영: 차오페이 Infinite Challenge Special Screening: Cao Fei 66min 30' 15세 국문(K),영문(E)		
6주차	5.21(수) — 5.25(일)			
5.21 수Wed	1:00 Far From Afghanistan 파 프롬 아프가니스탄 129min 12세 국문(K),영문(E)	3:30 Far From Vietnam 파 프롬 베트남 116min 12세 국문(K),영문(E)	6:00 인피니트 챌린지 특별상영: 슈리첵 Infinite Challenge Special Screening: Shu Lea Cheang 150min 18세 국문(K),영문(E)	
5.22 목Thu	1:30 자, 이제 댄스타임 Let's Dance 82min 12세 영문(E)	3:30 쉬린 네샷트 특별상영 Shirin Neshat Special Screening 95min 12세 국문(K),영문(E)		
5.23 금Fri	1:00 인피니트 챌린지 특별상영: 차오페이 Infinite Challenge Special Screening: Cao Fei 66min 30' 15세 국문(K),영문(E)	3:00 거미의 땅 Tour of Duty 150min 12세 영문(E)		
5.24 토Sat	1:00 Captivity 유패 64min 12세 국문(K),영문(E)	3:30 The Art of Disappearing 그 남자는 어떻게 사라졌나 51min 12세 국문(K),영문(E)	6:00 인피니트 챌린지 특별상영: 슈리첵 Infinite Challenge Special Screening: Shu Lea Cheang 150min 18세 국문(K),영문(E)	
5.25 일Sun	1:00 프리즈마 PRISMA 61min 15세 영문(E)	3:30 쉬린 네샷트 특별상영 Shirin Neshat Special Screening 95min 12세 국문(K),영문(E)		

7주차	5.28(수) — 6.1(일)			
5.28 수 Wed	1:00 인피니트 챌린지 특별상영: 차오페이 Infinite Challenge Special Screening: Cao Fei 66min 30' 15세 국문(K),영문(E)	3:30 산다 Sanda 93min 전체 영문(E)	관객과의 대화 Guest Visit 산다 Sanda	
5.29 목 Thu	1:30 Leviathan 리바이어던 87min 12세 대사없음	3:30 Reconversion 리컨버전 65min 15세 국문(K),영문(E)		
5.30 금 Fri	1:00 쉬린 네샷트 특별상영 Shirin Neshat Special Screening 95min 12세 국문(K),영문(E)	3:30 The Spirit of '45 1945년의 시대정신 93min 15세 국문(K),영문(E)		
5.31 토 Sat	1:00 The Stuart Hall Project 스튜어트 홀 프로젝트 98min 12세 국문(K),영문(E)	3:30 The Art of Disappearing 그 남자는 어떻게 사라졌나 51min 12세 국문(K),영문(E)	6:00 인피니트 챌린지 특별상영: 슈리첵 Infinite Challenge Special Screening: Shu Lea Cheang 150min 18세 국문(K),영문(E)	
6.1 일 Sun	1:00 인피니트 챌린지 특별상영: 차오페이 Infinite Challenge Special Screening: Cao Fei 66min 30' 15세 국문(K),영문(E)	3:00 인피니트 챌린지 특별상영: 슈리첵 Infinite Challenge Special Screening: Shu Lea Cheang 150min 18세 국문(K),영문(E)		
8주차	6.4(수) — 6.8(일)			
6.4 수 Wed	1:00 쉬린 네샷트 특별상영 Shirin Neshat Special Screening 95min 12세 국문(K),영문(E)	3:30 The Spirit of '45 1945년의 시대정신 93min 15세 국문(K),영문(E)	6:00 거미의 땅 Tour of Duty 150min 12세 영문(E)	
6.5 목 Thu	1:30 산다 Sanda 93min 전체 영문(E)	3:30 Captivity 유패 64min 12세 국문(K),영문(E)		
6.6 금 Fri	1:00 Far From Vietnam 파 프롬 베트남 116min 12세 국문(K),영문(E)	3:30 Far From Afghanistan 파 프롬 아프가니스탄 129min 12세 국문(K),영문(E)		
6.7 토 Sat	1:00 Leviathan 리바이어던 87min 12세 대사없음	3:30 인피니트 챌린지 특별상영: 차오페이 Infinite Challenge Special Screening: Cao Fei 66min 30' 15세 국문(K),영문(E)	6:00 자, 이제 댄스타임 Let's Dance 82min 12세 영문(E)	
6.8 일 Sun	1:00 Elena 엘레나 80min 15세 국문(K),영문(E)	3:00 The Ghost in Our Machine 우리 체제의 유령들 92min 12세 국문(K),영문(E)		

그 남자는 어떻게 사라졌나 THE ART OF DISAPPEARING

POLAND | 2013
51MIN | DCP | COLOR+B&W

바르텍 코노프카
BARTEK KONOPKA
피오토르 로소워브스키
PIOTR ROSOŁOWSKI

1980년에 폴란드를 방문했던 아이티 부두교 사제, 아몬 프리몬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폴란드에 머무는 동안 아몬은 폴란드 영혼들과 접촉하고 악으로부터 그들을 자유롭게 하는 부두교 의식을 행하였다. 다른 문화권에서 온 이방인의 눈을 통해 사회주의 시대에 대한 형이상학적인 관점을 보여준다.

An unknown story of a Haitian vodou priest, Amon FREMON, who visited the People's Republic of Poland in 1980. During his stay, Amon contacts Polish spirits and conducts a vodou ceremony to free Poles from evil. A metaphysical view on time of socialism through the eyes of a stranger from a different culture.



PIOTR ROSOŁOWSKI
FILMOGRAPHY

The Art of Disappearing (2013)
Fear of Falling (2011)
Rabbit a la Berlin (2009)

BARTEK KONOPKA
FILMOGRAPHY

The Domino Effect (2014)
The Art of Disappearing (2013)
Out of Dreams (2012)

피오토르 로소워브스키
Piotr ROSOŁOWSKI

카토비체영화학교에서 촬영을 전공하였다. 현재 폴란드와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다. 다큐멘터리 <아웃 오브 드림즈>, <그 남자는 어떻게 사라졌나>, <더 도미노 이펙트>를 공동 연출하였으며 <베를린의 토끼>와 <고트 워커>를 공동 집필하였다. <온 더 라인>, <노웨어 인 유럽>, <더 몰> 등 작품성을 인정받은 영화에서 촬영감독을 맡았다.

Graduated as cinematographer from the Katowice Film School. Lives and works in both Poland and Germany. Co-director of documentaries *Out of Dreams*, *The Art of Disappearing* and *The Domino Effect*, co-author of *Rabbit a la Berlin* and *Goat walker*. DP of many awarded feature and short films, among them: *On the line*, *Nowhere in Europe* and *The mole*.

바르텍 코노프카
Bartek KONOPKA

연출작 <베를린의 토끼>로 아카데미상에 노미네이트되었고 수많은 영화제에서 초청을 받았다. 장편 데뷔작인 <피어 오브 폴링>은 몬트리올영화제에서 프리미어 상영을 하였으며,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개봉하였다. 크라쿠프 야기엘로니아대학교, 카토비체 실레시아대학교에서 영화를 전공하였고 바이다영화학교에서 다큐멘터리와 극영화를 전공하였다.

Oscar nominated director for the *Rabbit a la Berlin* documentary that was shown at more than 100 festivals, received a dozen prizes and had been sold to 40 countries. His feature fiction debut *Fear of Falling* was premiered at Montreal IFF. Released in cinemas in France, Spain, Iran, Poland. Bartek is a graduate of film studies at the Jagiellonian University Cracow and of directing at the University of Silesia in Katowice. He also graduated from the documentary and fiction courses at Wajda School.

유페 CAPTIVITY

PORTUGAL | 2012

64MIN | DCP | COLOR

앙드레 길 마타

ANDRÉ GIL MATA

감금된다는 것은 공간과 시간 모두에 갇히는 것이다. 감금된 존재는 필연적으로 공간의 포로이다. 그는 그 공간의 일부가 되고, 그의 정체성은 계속해서 그 공간에 투영 된다. 감금의 공간은 스스로 활성화되고, 이 공간에 거주하는 누군가에 의해 특징지어지며 그 경험에 의해 형성된다.

To be captive is to be confined, both in space and in time. The captive one is not only and necessarily a prisoner, but becomes an inherent part of that space, his identity being continually projected on it. The captivity space itself is in turn not inert; it is rather characterized by whomever it contains, it is shaped by that experience.



ANDRÉ GIL MATA
FILMOGRAPHY

The Gravedigger (2012)

Captivity (2012)

House (2010)

앙드레 길 마타

André Gil MATA

1987년 생 포르투갈 출신. 사진과 연극 방면에서 일하며 사진&영화 독립 스튜디오 Átomo47를 설립했다. <워터 아크>, <하우스>, <더 그레이브디거> 등의 단편영화를 연출하였고 <유페>는 그의 첫 번째 장편 다큐멘터리이다. 현재 사라예보필름아카데미의 필름 팩토리 프로그램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Born in 1987, Portugal. Worked in photography and theatre. He founded the Photography and Film Independent LabStudio 'Átomo47'. He directed the shorts *House* and *The Gravedigger*. *Captivity* is his first feature length documentary. He is currently doing P.H.D at Film Factory in Sarajevo.



엘레나 ELENA

BRAZIL | 2012
80MIN | DCP | COLOR+B&W

페트라 코스타
PETRA COSTA

브라질 출신의 엘레나는 영화배우를 꿈꾼 자신의 어머니처럼 같은 꿈을 안고 7살 난 여동생 페트라를 곁을 떠나 뉴욕으로 떠난다. 20년이 흐른 뒤, 페트라 역시 배우가 되어 언니 엘레나를 찾아 뉴욕으로 향한다. 그녀는 몇 안되는 단서만을 지닌 채 엘레나를 찾기 위해 뉴욕의 거리를 배회한다. 마침내 페트라는 예기치 못한 장소에서 엘레나를 찾게 된다.

Elena, a young Brazilian woman, travels to New York with the same dream as her mother, to become a movie actress. She leaves Petra, her seven years younger sister. Two decades later, Petra also becomes an actress and goes to New York in search of Elena. She only has a few clues about Elena and hopes to find her. When Petra finally finds Elena in an unexpected place, she has to learn to let her go.



PETRA COSTA
FILMOGRAPHY

Elena (2012)
Undertow Eyes (2009)

페트라 코스타
PETRA COSTA

브라질 출신의 영화제작자이자 배우이다. 2009년 연출한 단편 <언더토우 아이즈>는 브라질 노부부의 관점을 통해 사랑과 나이 들에 대해 시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엘레나>는 그녀의 첫 번째 장편 다큐멘터리이다.

Petra COSTA (born 1983) is a Brazilian filmmaker and actress. Petra directed and produced the short film *Undertow Eyes*, a poetic depiction of aging and love, as seen through the perspective of her elderly Brazilian grandparents. *Elena* is her first feature-length fil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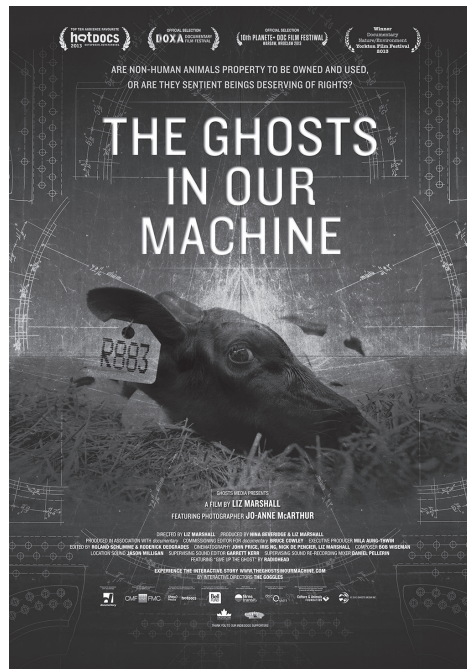
우리 체제의 유령들 THE GHOSTS IN OUR MACHINE

CANADA | 2013
92MIN | HD | COLOR

리즈 마샬
LIZ MARSH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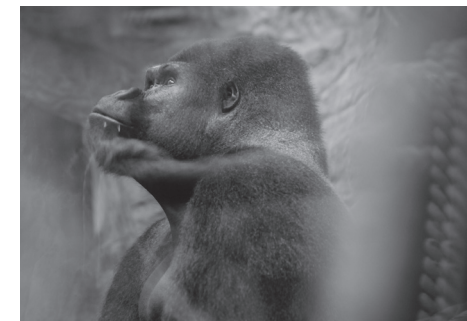
영화는 현대 사회의 작동 기계로부터 구출되었거나 여전히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물들의 삶을 조명한다. 호평 받는 동물 전문 사진작가 조 앤 맥아더의 따뜻한 시선을 통해 우리는 그들의 모습에 점차 친숙해진다. 영화는 그녀가 캐나다, 미국, 유럽 등지에서 동물과 관련된 이슈를 포착했던 일 년의 기록을 따라간다.

This film illuminates the lives of individual animals living within and rescued from the machine of our modern world. Through the heart and photographic lens of acclaimed animal photographer Jo-Anne McARTHUR, we become intimately familiar with a cast of non-human animals. The film follows McARTHUR over the course of a year as she photographs several animal stories in parts of Canada, the US and in Europe.



LIZ MARSHALL
FILMOGRAPHY

The Ghosts in Our Machine (2013)
Water on the Table (2010)
Girls of Latitude (2008)
The Rawsides of... The Bourbon
Tabernacle Choir (2008)
Inside Your Threads (2004)



리즈 마샬
LIZ MARSHALL

라이어슨대학교에서 미디어 아트를 공부한 리즈 마샬은 환경과 사회를 영화로 시각화하는데 뛰어난 재능을 가진 독창적 감독이다. <우리 체제의 유령들>, <워터 온 더 테이블> 등의 다큐멘터리를 연출했으며 여러 프로젝트를 통해 동물, 물, 사막, HIV/AIDS 등의 사회적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Liz MARSHALL is an auteur filmmaker who fuses cinematic storytelling with social and environmental justice issues. Directed *Water on the Table*, *The Ghost in Our Machine*. She is well versed in the craft of visual, conceptual and social-issue storytelling having worked as a director, writer, producer videographer, cinematographer and photographer since 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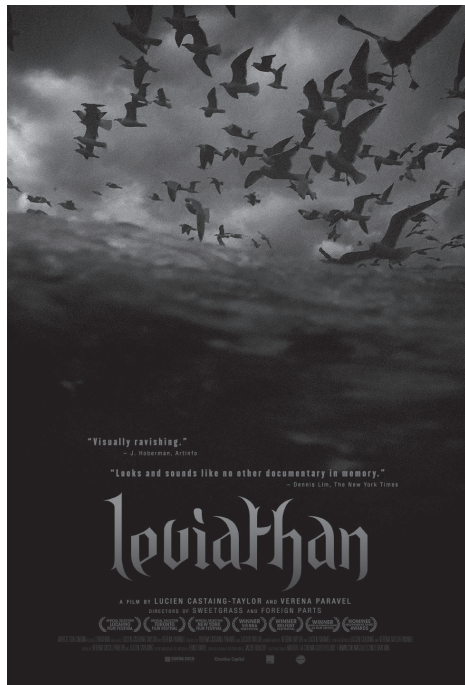
리바이어던 LEVIATHAN

USA, FRANCE, UK | 2012
87MIN | DCP | COLOR

베레나 파라벨
VÉRÉNA PARAVEL
뤼시앵 카스팅-테일러
LUCIEN CASTAING-TAYLOR

리바이어던 은 황홀하고 생생한 다큐멘터리로 당신을 상업화된 어업의 위험한 세계로 깊숙이 데려갈 것이다. 제작자들은 뉴 잉글랜드의 해안 - 허먼 멜빌의 『백경』에 영감을 주었던 장소에서 예측불허의 파도 속을 항해하는 거대한 어선에 동승하여, 어부들의 거칠고 힘든 세계를 무시무시하면서 동시에 아름답게 포착했다.

Leviathan is a thrilling, immersive documentary that takes you deep inside the dangerous world of commercial fishing. Set aboard a hulking fishing vessel as it navigates the treacherous waves off the New England coast, the very waters that once inspired Moby Dick. The film captures the harsh, unforgiving world of the fishermen in starkly haunting, yet beautiful detail.



VÉRÉNA PARAVEL
FILMOGRAPHY

Leviathan (2012)
Foreign Parts (2010)
Interface Series (200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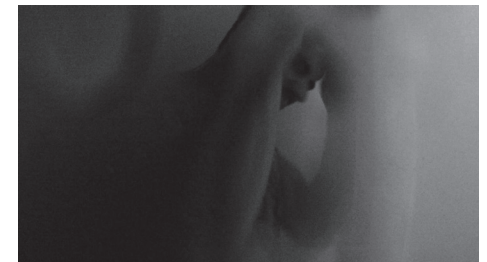
LUCIEN CASTAING-TAYLOR
FILMOGRAPHY

Leviathan (2012)
Hell Roaring Creek (2010)
The High Trail (2010)

베레나 파라벨 VÉRÉNA PARAVEL
뤼시앵 카스팅-테일러 LUCIEN CASTAING-TAYLOR

하버드대학교 센소리 에소노그래피 랩 소속의 영화제작자이며 예술가이자 인류학자이다. 그들의 작품은 뉴욕현대미술관과 영국 대영박물관의 영구 소장품 중 하나이며 미국영화연구소, 부에노스아이레스영화제, 베를린, 코펜하겐, 로카르노, 뉴욕, 토론토 그리고 베니스영화제 등에서 상영되었다. 베레나 파라벨은 <폴린 파트>, <인터페이스 시리즈>, <세븐 퀸즈> 등을 연출했고, 뤼시앵 카스팅-테일러는 <헬 로우링 크랙>, <더 하이 트레일>, <스위트그래스> 등을 연출했다.

Filmmakers, artists, and anthropologists, whose work at the Sensory Ethnography Lab at Harvard University. Their work is in the permanent collection of the Museum of Modern Art (NY), and the British Museum, and has been screened at the AFI, BAFICI, Berlin, CPH:DOX, Locarno, NewYork, Toronto, and Viennale film festivals. PARAVEL's films include *Foreign Parts*, *Interface series* and *7 Queens*; and Castaing-TAYLOR's *Hell Roaring Creek*, *The High Trail* and *Sweetgrass*.



1945년의 시대정신 THE SPIRIT OF '45

UK | 2012

93MIN | DCP | B&W

켄 로치

KEN LOACH

1945년은 영국역사의 중심이 되는 해였다. 양차 대전 사이의 씁쓸한 기억을 동반했던 전쟁을 거치며 영국이 가지고 있던 유대감은 더 나은 사회에 대한 비전으로 이어졌다. 이 시대의 정신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지키는 것이었다. 켄 로치는 풍부한 정치, 사회적 서술을 만들기 위해 영국의 지역 및 국립 아카이브에서 찾은 영상과 음성 기록물 그리고 그 시대의 인터뷰를 사용했다.

1945 was a pivotal year in British history. The unity that carried Britain through the war allied to the bitter memories of the inter-war years led to a vision of a better society. The spirit of the age was to be our brother's and our sister's keeper. Ken LOACH has used films from Britain's regional and national archives, alongside sound recordings and contemporary interviews to create a rich political and social narrative.



KEN LOACH

FILMOGRAPHY

The Spirit of '45 (2013)

The Angels' Share (2012)

Route Irish (2010)

Looking for Eric (2009)

It's a Free World... (2007)



켄 로치

KEN LOACH

1936년 생. 에드워드 6세 그래머학교를 거쳐 옥스퍼드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극단을 잠시 거쳐 1963년에 방송연출자로 BBC에 일하게 되면서 방송과 영화계로 진출하였다. 1960년대에 <캐시 컴 홈>, <케스>에서부터 <랜드 앤 프리덤>, <스위트 십스틴>, 최근작들인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 <엔젤스 셰어: 천사를 위한 위스키> 등을 연출하며 활발한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Born in 1936 in Nuneaton. He attended King Edward VI Grammar School and went on to study law at St. Peter's Hall, Oxford. After a brief spell in the theatre, he was recruited by the BBC in 1963 as a television director. This launched a long career directing films for television and the cinema, from *Cathy Come Home* and *Kes* in the sixties to *Land and Freedom*, *Sweet Sixteen*, *The Wind That Shakes the Barley* and *The Angel's Share* in recent years.

스튜어트 홀 프로젝트 THE STUART HALL PROJECT

UK | 2013
98MIN | HD | COLOR+B&W

존 아캄프라
JOHN AKOMFRAH

스튜어트 홀은 한 세대의 가장 영향력 있고 존경 받는 문화이론가 중 한 사람이다. 이 다큐멘터리는 그가 많은 TV방송에서 이론을 세웠던 이슈와 사건들 사이를 항해한다. 그것은 핵무기 철폐 운동, 1950년대와 60년대에 있었던 자유투쟁, 유럽 식민주의의 종말과 냉전의 종식, 페미니즘의 대두, 발칸 전쟁과 있는 인종과 계급 문제를 아우른다.

Stuart HALL is one of the most influential and esteemed cultural theorists of a generation. This documentary navigates the many events and issues on which HALL theorized in his many TV broadcasts. These included the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the liberation struggles of the 1950's and 60's, the end of European colonialism, the end of the Cold War, the rise of feminism, the Balkan wars and the race and class.



JOHN AKOMFRAH
FILMOGRAPHY

The Stuart Hall Project (2013)
The Nine Muses (2010)
Wetin Dey (2006)
Stalkers (2003)
Digitopia (2000)

스튜어트 홀 프로젝트 THE STUART HALL PROJECT
존 아캄프라 JOHN AKOMFRAH

유럽과 북미, 아프리카에서 호평 받는 극영화 및 다큐멘터리 영화제작자이다. 또한 영국의 흑인 영화 운동의 핵심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1986년 이후로 30여편이 넘는 다큐멘터리와 단편영화를 연출하였으며, 평단의 찬사를 받아 왔다. 주요 작품으로는 <핸즈위스 송즈>, <세븐 송즈 포 말콤 X>, <더 원더풀 월드 오브 루이 암스트롱>, <라이어트>, <나인 뮤즈>등이 있다.

John AKOMFRAH is a filmmaker whose feature films and documentaries have won critical acclaim in, Europe, North America and Africa and also a key figure in the Black British cinema movement. He has directed over 30 critically acclaimed and award winning creative documentaries, several short films and several features for international release. His extensive filmography includes *Handsworth Songs*, *Seven Songs for Malcolm X*, *The Wonderful World of Louis Armstrong*, *Riot* and *The Nine Mu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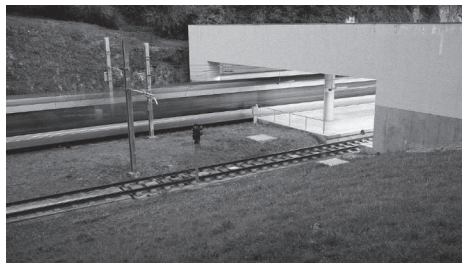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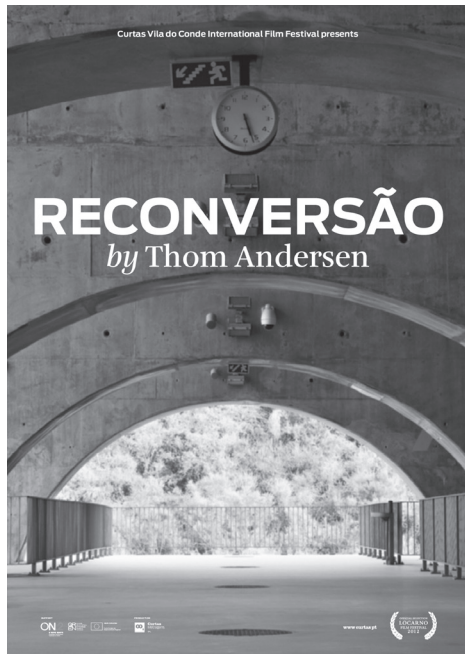
리컨버전 RECONVERSION

PORTUGAL | 2012
65MIN | HD | COLOR

톰 앤더슨
THOM ANDERSON

리컨버전 은 포르투갈 건축가 에두아르도 소투 드 모라의 17개의 건축물과 프로젝트를 그가 직접 쓴 글과 함께 보여준다. 영화는 그의 건축물을 어떤 비평이나 해설 없이 탐구한다. 브라가 스타디움의 여행가이드만이 건축물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들려주지만 이것은 예외에 가까울 뿐 대부분 건축물을 객관적으로 제시한다. 에두아르도 소투 드 모라는 이런 말을 남겼다. “아무것도 없다면 나는 거기에 먼저 있었던 존재를 만들어내겠다.”

Reconversion portrays 17 buildings and projects by Portuguese architect Eduardo Souto DE MOURA, accompanied usually by his own writings. It is a search for his architecture, without critical commentary. Only the tour guide at Braga Stadium offers generalizations, which fit that work well enough, but it may be the exception, not the rule. Souto DE MOURA has the last word: “If there is nothing there, I invent a preexistence.”



THOM ANDERSON FILMOGRAPHY

Reconversion (2012)
Get Out of the Car (2010)
Los Angeles Plays Itself (2003)
Red Hollywood (1996)
Eadweard Muybridge, Zoopraxographer (1974)

톰 앤더슨 THOM ANDERSON

1974년 에드워드 마이브리지의 작품세계에 대한 다큐멘터리 <에드워드 마이브리지, 주파라소그래퍼>를 연출했으며, 1995년 노엘 버치와 함께 할리우드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희생자들이 만든 작품에 대한 비디오 <레드 할리우드>를 만들었다. 2010년에는 도시의 시각적 고고학에 대한 <겟 아웃 오브 카>를 연출했다. 1987년부터 미국 칼라츠에서 영화구성을 가르치고 있다.

In 1974 he completed *Eadweard Muybridge, Zoopraxographer*, an hour-long documentation of Edward MUYBRIDGE's photographic work. In 1995, with Noel BURCH, he completed *Red Hollywood*, a videotape about the film work created by the victims of the Hollywood Blacklist. In 2010, he also directed *Get Out of the Car*, about the visual archeology of the city. He has taught film composition at the California Institute of the Arts since 1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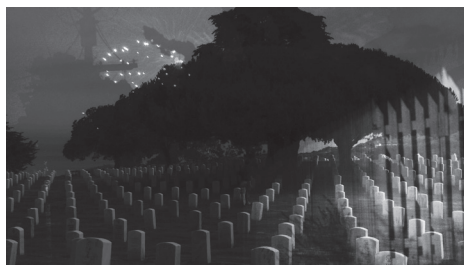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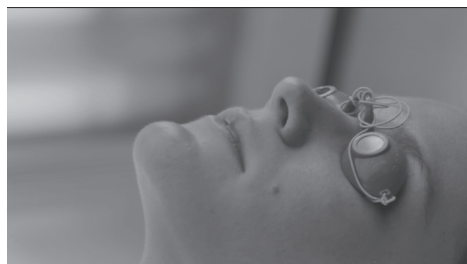
파 프롬 아프가니스탄 FAR FROM AFGHANISTAN

USA, AFGHANISTAN | 2012
129MIN | HD | COLOR+B&W

존 지안비토
JOHN GIANVITO
존 조스트
JOHN JOST
유순미
YOO SOON-MI
민다 마틴
MINDA MARTIN
트래비스 윌커슨
TRAVIS WILKERSON

미국역사상 가장 긴 대외전쟁이었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다양한 영화적 접근을 통해 담아낸 영화. 공동작업으로 제작되었던 1967년 작 <파 프롬 베트남>에서 영감을 받은 이 영화는 미국의 외교정책이 군사정치적 개입에서 좀 더 발전적인 원조와 진정한 인도주의의 방향으로 바뀔 수 있기를 발언한다.

Far from Afghanistan forms a mosaic of cinematic approaches to take a critical look at the longest overseas war in US history. Inspired by the 1967 collaborative film *Far from Vietnam*, *Far from Afghanistan* likewise unites a variety of filmmakers, cinematographers, editors and technicians in the international effort to redirect US policy away from military and political intervention toward true humanitarian and developmental care-giving as invited.



존 지안비토 JOHN GIANVITO
존 조스트 JOHN JOST
유순미 YOO SOON-MI
민다 마틴 MINDA MARTIN
트래비스 윌커슨 TRAVIS WILKERSON

<파 프롬 아프가니스탄>은 다양한 배경과 연령대를 가진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미국 영화제작자들의 협력으로 이루어졌다. 아프가니스탄 언론인 단체, 아프간 보이스의 기부금과 존 지안비토 (<이웃 동기와 속삭이는 바람>), 존 조스트 (<올 더 버미어 인 뉴욕>), 민다 마틴 (<프리 랜드>), 트래비스 윌커슨 (<노동 운동가, 그를 살해한 이유>), 유순미 (<대인저러스 서플먼트>), 로버트 토드 (<메디테이션>) 그리고 파초 벨레즈 (<바스터즈 오브 유토피아>)의 협력으로 구성되었다.

Far from Afghanistan comprises the collaborative efforts of a range of politically-progressive U.S. filmmakers of different generations and backgrounds: John GIANVITO (*Profit Motive And The Whispering Wind*), John JOST (*All The Vermeers In New York*), Minda MARTIN (*Free Land*), Travis Wilkerson (*An Injury To One*), YOO Soon-mi (*Dangerous Supplement*), Robert TODD (*Meditations*) and Pacho VELEZ (*Bastards of Utopia*) - alongside contributions by "Afghan Voices" a collective of media journalists in Afghanistan.



파 프롬 베트남 FAR FROM VIETNAM

FRANCE | 1967
116MIN | DCP | COLOR

장 퉁 고다르
JEAN-LUC GODARD
요리스 이벤스
JORIS IVENS
윌리엄 클라인
WILLIAM KLEIN
끌로드 를르슈
CLAUDE LELOUCH
크리스 마르케
CHRIS MARKER
알랭 레네
ALAIN RESNAIS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영화감독들이 모여 만든 1967년 작품.
11개의 챕터로 이루어진 영화는 부유한 국가가 가난한 나라를 공격할 때
생기는 갈등과 충돌을 다양한 관점으로 보여주고 있다. 결론은 명백하다.
‘전쟁을 중지하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라. 또다시 싸움을 계속한다면
결국은 전쟁에서 패배하게 될 것이다’.

In 1967, film directors and technicians are definitively against
war in Vietnam. Their film, in eleven chapters, shows their point to
face the conflict where the rich are against the poor. Their conclusion
is obvious and clear; Stop the war and start a new relationship with
people, or keep fighting again and lose the war.



장 퉁 고다르 JEAN-LUC GODARD
요리스 이벤스 JORIS IVENS
윌리엄 클라인 WILLIAM KLEIN
끌로드 를르슈 CLAUDE LELOUCH
크리스 마르케 CHRIS MARKER
알랭 레네 ALAIN RESNAIS

<파 프롬 베트남>은 1967년에 영화계 거장들 사이의 협력으로
만들어진 서사시이다. 장 퉁 고다르(<내 멋대로 해라>), 요리스
이벤스(<바람 이야기>), 윌리엄 클라인(<부두>), 끌로드 를르슈
(<남과 여>), 크리스 마르케(<태양없이>), 알랭 레네(<히로시마,
내 사랑>)는 베트남에서의 미국의 군대 개입에 항의하여 이 작품을
만들었다. 프로듀서인 크리스 마르케의 내레이션에 따르면 “감독들은 이
작품 활동으로 침략에 대항해 투쟁하고 있는 베트남 국민들과의 연대를
확실히 밝힌다.”

Far from Vietnam is an epic 1967 collaboration between cinema
greats Jean-Luc GODARD (*A bout de souffle*), Joris IVENS (*A Tale Of
The Wind*), William KLEIN (*The Pier*), Claude LELOUCH (*Un Homme
et Une Femme*), Chris MARKER (*Sunless*) and Alain RESNAIS
(*Hiroshima, My Love*) in protest of American military involvement
in Vietnam-made, per MARKER's narration, “to affirm, by the
exercise of their craft, their solidarity with the Vietnamese people in
struggle against aggression.”



프리즈마 PRISMA

KOREA | 2013
61MIN | HD | COLOR

임철민
IM CHEOL-MIN

본래의 몸을 잃어버린 움직임들이 자꾸만 주변에서 맴돈다. 그러면 오랫동안 숨겨왔던 감정의 결들이 불현듯이. 길게 내뿜은 날숨이 모든 순간들을 가로질러 환영의 끝에 닿자, 보석처럼 빛나는 미래의 기억들. 그제서야 비로소 연속되는 세계.

Movements that have lost its original frame keep encircling me. Then, all of a sudden, the grains of long-hidden emotions start to stir. When I let out a long breath, it cuts across every moment and reaches the very end of hallucinations and memories of the future are revealed like treasures. Only then does the world go on.



IM CHEOL-MIN
FILMOGRAPHY

PRISMA (2013)
Golden Light (2011)
Secret Garden (2010)

임철민
IM CHEOL-MIN

첫 번째 단편 <시크릿 가든>이 인디포럼, 서울독립영화제, 시라쿠스영화제 등에서 상영 되었고 두 번째 단편 <골든 라이트>는 인디포럼에서 상영되었다. <프리즈마>는 감독의 첫 장편연출작이다.

IM Cheol-min's first short film *Secret Garden* was invited to the Indie Forum, Seoul Independent Film Festival and other festivals. His second short film is *Golden Light*. *PRISMA* is his first feature film.



자, 이제 댄스타임 LET'S DANCE

KOREA | 2013
81MIN | HD | COLOR

조세영
JO SE-YOUNG

2009년, 대한민국 한 산부인과 의사단체가 낙태를 시술한 병원과 동료의사들을 고발한다. 이를 계기로 종교, 시민단체, 각종 협회들은 성명을 내고 언론 또한 물 만난 마냥 연일 보도를 이었다. 몇 년 뒤, '당신의 목소리가 듣고 싶습니다'란 한 장의 웹자보를 본 여성들이 카메라 앞에 선다. 찬반 논란에 가려져 있던 그녀들의 경험이 드러나기 시작하며 이야기는 과거로 간다.

In 2009, a group of Korean obstetricians blew the whistle on their fellow doctors and hospitals that performed surgical abortions, leading to an uproar in the society. This gave various organizations such as religious and civic groups to issue statements about this issue, and the media did not miss the chance to make reports almost every day. After a few years, a group of women stand before the camera, holding an online poster that read "I Want to Hear Your Voice." As the women's experiences that had been thus hidden behind the arguments are revealed bit by bit, the story then takes us back to the past.



JO SE-YOUNG
FILMOGRAPHY

<자, 이제 댄스타임> *Let's Dance* (2013)
<버라이어티 생존토크쇼>
Variety Survival Talkshow (2009)
<메이드 인 한국인- 해외입양을 말하다>
Made in Korea - International Adoptions (2005)

조세영
JO SE-YOUNG

<돌 속에 갇힌 말>의 조연출을 시작으로 <메이드 인 한국 - 해외입양을 말하다>, <버라이어티 생존토크쇼> 등을 연출을 하였다. <자, 이제 댄스타임>은 그녀의 신작 다큐멘터리이다.

Worked as Assistant Director for *Words Kept In A Stone*. Directed *Made in Korea: International Adoptions* and *Variety Survival Talkshow*. *Let's Dance* is her latest documentary.



망원동 인공위성 THE BASEMENT SATELLITE

KOREA | 2013
110MIN | HD | COLOR

김형주
KIM HYUNG-JOO

미디어 아티스트 송호준은 망원동 지하 작업실에서 혼자 힘으로 인공위성을 만들어 우주로 띄우려는 꿈을 가지고 있다. OSSl (Open Source Satellite Initiative), 즉 인공위성 제작 공개 운동을 통해 자신만의 별을 쏘아 올리겠다는 것이다. D.I.Y 방식으로 인공위성을 만들고, 티셔츠 1만 장을 팔아 1억 원의 제작비를 구하겠다는 무모한 계획. 과연 송호준은 꿈을 이룰 수 있을까?

In his Mangwon-dong underground art studio, media artist SONG Ho-jun dreams of making a satellite and shooting it out to space. He thinks OSSl (Open Source Satellite Initiative) will enable him to make his dream come true. He constructs a D.I.Y. satellite. For the 100 million won budget, he sells T-shirts. His seemingly reckless and utterly ambitious project begins. Would SONG's dream become re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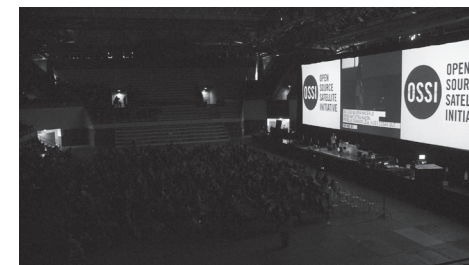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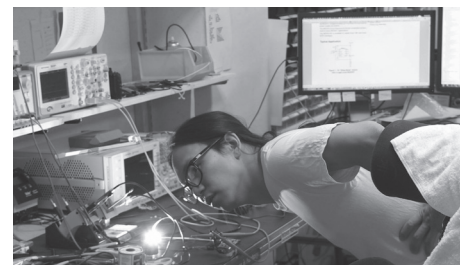
KIM HYOUNG-JU
FILMOGRAPHY

<망원동 인공위성>
The Basement Satellite (2013)

김형주
KIM HYOUNG-JU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촬영 전공 학사와 전문사를 마치고 촬영감독으로 일해왔다. 민병훈 감독의 <포도나무를 베어라>와 하명중 감독의 <어머니는 죽지 않는다>, 김성호 감독의 <그녀에게>, 이정향 감독의 <오늘> 등의 장편 극영화와 정재은 감독의 다큐멘터리 <말하는 건축가>를 촬영했다. <망원동 인공위성>은 김형주 감독의 첫 연출 작품이다.

After completing his undergraduate and graduate work at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KIM Hyung-ju built his career as a cinematographer. He worked on feature film *Pruning the Grapevine* directed by MIN Byung-hoon, *She Came From* by KIM Sung-ho, *A Reason to Live* by LEE Jung-hyang and the documentary film *Talking Architecture* by JUNG Jae-eun. *The Basement Satellite* is his debut film as a director.



논픽션다이어리 NON FICTION DIARY

KOREA | 2013
93MIN | HD | COLOR

정윤석
JUNG YOON-SUK 101

1994년 20대 초반 아이들로 이뤄진 지존파의 등장은 한국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준다. “인육을 먹었다”, “부자들을 못 죽여서 한이 된다” 등 그들의 거침없는 언행 및 엽기적인 범행에 당황한 김영삼 정부는 당시 기득권 세력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본보기로 빠른 사형집행을 약속하지만 곧 이어 터진 성수대교 및 삼풍백화점 붕괴로 인해 사건은 혼란 속으로 빠져든다.

In 1994, the emergence of the Jijonpa (Gang of the Most Revered) in Korea shocked the nation. The Jijonpa had been formed by a group of kids in their early 20's who later made such outrageous proclamations as “We ate human flesh” and “It is our greatest regret that we weren't able to murder more rich people.” Embarrassed by such violent crimes of the Jijonpa, President KIM Young-sam's government promised speedy execution of a death penalty, in an effort to assuage the growing uneasiness among the rich and the powerful. Yet, the collapse of the Seongsoo Bridge and the Sampoong Department Store that soon followed meant that the whole case was thrown deeper into chaos.



JUNG YOON-SUK
FILMOGRAPHY

<논픽션다이어리>
Non Fiction Diary (2013)
<먼지들> *Dusts* (2012)
<잼 다큐 강정>
Jam Docu KANGJUNG (2011)
<별들의 고향>
The Home of Stars (2010)
<불타는 신기루>
Burning Mirage (2009)

정윤석
JUNG YOON-SUK

한국예술종합학교 조형예술과, 동대학원에서 다큐멘터리를 전공하고 현재 미술가 및 영화감독으로 활동중이다. 다큐멘터리와 미술이라는 형식을 통해 국가와 사회의 ‘공공성’을 꾸준히 질문해왔다. 2010년 밴쿠버국제영화제, 2011 부산국제영화제, 2012 광주비엔날레등 국내 외 영화제 및 전시를 통해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Studied plastic arts at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and went on to major in documentary film making at its Graduate School. Now working as a filmmaker as well as an artist, he has persistently posed some serious questions about the public nature of the nation and society, through the means of art and documentary filmmaking. His works have been screened and exhibited at numerous film festivals and art exhibitions both in and out of Korea, including the 29th Vancouver International Film Festival, the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the Gwangju Biennale.



산다 SANDA

KOREA | 2013
93MIN | HD | COLOR

김미례
KIM MI-RE

KT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며 이제는 중년이 된 정규직 노동자들. 회사의 희망퇴직 요구를 거부한 이들은 원거리 발령을 받고 하루에 서너 시간 이상을 출퇴근으로 보내고 있다. 이러한 회사의 퇴출프로그램은 특히 노동운동을 지향하고 있는 이들에게 강도 높게 실시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이들의 자존감을 자극하고 저항감을 불러일으켰는데... 이제 이들은 회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나게 살기 위해서 삶의 반란을 시도한다.

A group of middle-aged Korea Telecom (KT) workers serves as a window on the labor movement and contemporary Korea. The company forcefully recommended them resignation. The ones who refused were sent faraway branch where commuting takes three to four hours. They are bullied by co-workers who dump tasks on them. Whoever strongly claims laborers' rights are more oppressed. Yet, they refuse to yield. They struggle not to simply survive at work but to live with joy.



KIM MI-RE
FILMOGRAPHY

<산다> *Sanda* (2013)
<함께 춤출래요?>
Shall We Dance? (2012)
<외박> *Weabak* (2009)
<노가다> *NoGaDa* (2005)
<노동자다 아니다>
We Are Workers or Not? (2003)

김미례
KIM MI-RE

2000년부터 독립다큐멘터리 작업을 시작하였다. <노가다>, <외박>, <함께 춤출래요?> 등을 연출하였다. <노가다>는 스위스 프리부르크국제영화제 되었으며, 서울인권영화제에서 '올해의 인권영화상'을 수상하였다. <외박>은 인도 첸나이여성영화제, 일본 아마가타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등에서 상영된 바 있으며, 여성영화인축제 올해의 여성영화인 다큐멘터리부문상을 수상하였다.

Since 2000, she has worked on documentary film. She directed *NoGaDa*, *Staying Out* and *Shall We Dance?*. *NoGaDa* was invited to the Fribourg International Film Festival in Switzerland and awarded the Human Rights Film of the Year at the Seoul Human Rights Film Festival. *Staying Out*, which won the Best Documentary Award at Women Filmmakers' Festival, was screened at the Women's International Film Festival in Chennai, India and at the Yamagata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in Japan.

거미의 땅 TOUR OF DUTY

KOREA | 2012
150MIN | DCP | COLOR

김동령
KIM DONG-RYUNG
박경태
PARK KYOUNG-TAE

철거를 앞 둔 채 침묵하고 있는 경기 북부 미군 기지촌에는 몸에 각인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세 명의 여인이 있다. 30여 년간 선유리에서 햄버거를 만들어 온 '바비엄마', 의정부 뺑벌의 쇠락한 좁은 골목에서 폐휴지를 줍는 박인순, 그리고 흑인계 혼혈인 안성자의 분절된 기억을 따라 영화는 망각된 기지촌의 공간 속에서 '의무의 여행'을 시작한다.

There remains only silence in a US military camp town in the northern part of Gyeonggi province which will be pulled down any time soon. In the town, three women; Aunt Bobby, PARK In-soon and AHN Sung-ja are still living with pains engraved in their bodies. Following the pieces of their memories, *Tour of Duty* goes into the forgotten town to reveal the truth left behind.



KIM DONG-RYUNG
FILMOGRAPHY

<거미의 땅> *Tour of Duty* (2012)
<아메리칸 앨리>
American Alley (2008)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Alice in Wonderland (2008)

PARK KYOUNG-TAE
FILMOGRAPHY

<거미의 땅> *Tour of Duty* (2012)
<사당동 더하기22> *A Nice Place* (2009)
<노병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Veteran Does Not Disappear, Just
(2008)



김동령
KIM DONG-RYUNG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E)학과 졸업. 한국영화아카데미에서 영화연출을 전공했고, 현재 파리제8대학에서 영화학 석사과정 중이다. 2008년 쇠락한 미군 기지촌으로 유입된 외국인 여성들의 삶을 다룬 <아메리칸 앨리> 연출하였다.

She graduated from Ewha Womans University with a degree in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and studied filmmaking at the Korean Academy of Film Arts. She has been studying film at Université Paris 8. She directed *American Alley*, a feature-length documentary about foreign women working as entertainers in the US military camp sites.

박경태
PARK KYOUNG-TAE

동국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졸업. 현재 파리8대학에서 영화학 석사과정 중이다. 다큐멘터리 <나와 부영이>와 <있다>를 통해 기지촌 생존자들에 대한 작업을 해왔다.

He graduated from Dongguk University with a master's degree in Sociology. He has been studying film at Université Paris 8. He has built up an intimate perspective on survivors of campsites through his documentaries *Me and the Owl* and *There is*.





MMCA FILM AND VIDEO

생각하는 영화 <논픽션의 기술들>

기간	2014년 4월 16일(수) — 6월 8일(일)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영화관
주최	국립현대미술관
후원	DMZ국제다큐영화제
관람	무료 (당일 미술관 관람권 소지자에 한하여 선착순 입장)
상영시간	수요일 ~ 일요일 1:00 PM / 3:30 PM (3:00 PM) / 6:00 PM

THE ART OF NON FICTION

Event	April 16 2014 (Wed) — June 8 2014 (Sun)
Venue	MMCA Seoul Theatre
Host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Sponsor	DMZ Korean International Documentary Festival
Admission	Only visitors with the admission ticket to exhibitions are permitted for entry after getting the theatre ticket.
Screening Schedule	Wednesday — Sunday 1:00 PM / 3:30 PM (3:00 PM) / 6:00 PM



주최 국립현대미술관



후원 DMZ국제다큐영화제

